아시아계 미국인의 이주사와 교육사를 통한 인종주의(Racism)에 대한 고찰

김용한* · 이전이**

<차 례>

1. 서론
2. 이론적 분석 틀
3.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주 역사
  1) 중국계 이주자
  2) 일본계 이주자
  3) 필리핀계 이주자
  4) 변화의 시기
4. 아시아계 미국인의 교육사
  1) 분리교육
  2)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
  3) 정형화된 이미지, '모범적 소수자'와 보이지 않는 배척
5. 논의
6.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 이동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맞이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 명지대학교 국제다문화 교수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민자의 나라를 표방해온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이주자와 그들의 자녀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자들이 겪는 인종주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있다. 이를 위해 Derrick Bell의 '이익 접점 이론'(Interest Convergence Theory)을 분석의 틀로 하여 미국의 아시아계 이주자의 이주사와 교육 경험을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 지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미국 아시아계 이주자들에 대한 배척과 이들이 겪어온 차별적 교육경험은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 주류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이익을 창출하려는 데서 비롯된 사회의 구조적 산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이주, 분리교육,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 아시아계 미국인, 이익 접점 이론.

1. 서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3%에 약간 못 미치는 약 1억 9천만 명이 본인이 태어난 국가를 떠나 외국에서 살고 있다.[1] 특히 스위스와 호주와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이민자들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다. 이것을 작은 수의 인구 이동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이주자들이 자신의 모국과 새로운 도착지에 미치는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은 그들의 인구수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2]

---

1) OECD, "World migration in figures", OECD-UNDESA, 2012, p. 2.

2) Castles, Stephen & Miller, Mark J.,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 이주자들은 인종주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초국경적 인구이동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주자와 그 자녀들이 차별받고 배척당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다양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자들이 겪는 인종주의(Racism)의 원인을 오랜 세월 동안 이민자의 나라를 표방해온 미국의 이주민 역사와 그들의 교육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가운데 특히 인종적 소수자인 동시에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주목하여 검토할 것이다.[3)]

---

people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Castles, Stephen, "The myth of the controllability of difference: labor migration, transnational communities and state strateg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Katie Willis & Brenda S. A. Yeoh(eds.), *State/Nation/Translation: Perspectives on Transnationalism in the Asia-Pacific,*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04, pp. 3-26; Castells, Manuel,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England: Blackwell, 1996; Castells, Manuel, E*nd of millennium*, Oxford, England: Blackwell, 1998; Albrow, Martin, *The global age,* Cambridge, England: Polity Press, 1996. 참조.

3) 필자가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민자의 나라를 표방해온 국가이다. 한 예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한 교과서에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민자 이거나 이민자의 후손들이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하지만 King, Joyce Elaine은 이는 미국의 주류인 유럽계 미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인디안(American Indian)은 유럽계 이민자들이 오기 한참 전부터 미국 전역에 퍼져 살고 있었다. 또한 많은 수의 히스패닉계(Hispanic)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지만, 모든 히스패닉계 미국인이 이민자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의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의 지역에는 히스패닉계 농부들이 미국이 건국되기 전부터 살고 있었다. 이들 히스패닉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인한 편입과정에서 나라가 바뀐 것뿐이지, 이들은 이민자가 아닌 원주민들이었다. 대다수의 흑인계 미국인들 역시 그들의 조상이 노예로 미국에 끌려온 것이었지 자발적인 이민자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아시아계와 유럽계 미국인만을 모두 이민자와 그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팔자는 소수자인 동시에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가운데 하나인 Derrick Bell의 '이익 접점 이론'(Interest Convergence Theory)[4]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아시아계 미국인의 교육사를 보다 심층적, 다층적으로 살펴보기에 위해 그 배경이 되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주역사를 중국, 일본, 필리핀계 이주자를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셋째, 아시아계 미국인의 교육사를 분리교육,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 그리고 모범적 소수자 이미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주사와 그들이 경험한 차별적 교육역사를 '이익 접점 이론'에 접목하여 논의할 것이다.

2. 이론적 분석 틀

많은 사람들은 '인종'이란 인류를 피부색, 홍채의 색, 머리 골격 등 신체적 특징에 따라 분류한 과학적 연구의 산물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인종의 분류 기준은 모호하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5] 한 예로, 다른 인종 간의 결혼으로 태어난 혼혈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인류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4) Bell, Derrick A., "Brown v. Board of Education and the interest-convergence dilemma.", *Harvard Law Review* 93(3): 518-534, 1980; Bell, Derrick A., S*ilent covenants: Brown v. Board of Education and the unfulfilled hopes for racial reform*,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5) Galabuzi, Grace-Edward, *Canada's economic apartheid: The social exclusion of racialized groups in the new century*, Toronto: Canadian Scholar's Press, 2006; Martinot, Steve, *The rule of racialization: Class, identity, governanc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03; Stanley, Timothy, "Bring Anti-racism into historical explanation: The victoria chinese students' strike of 1992-3 revisited." *Journal of the Canadian History Association*, 13(1), 141-165, 2002, 참조.

흑인, 백인, 아시아인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인종 간의 범주를 무너트린다. 하지만 미국사회에서는 혼혈인이 겉보기에는 백인이라도 유색인종의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으면 유색인종으로 분류된다. '한 방울 법칙'(one-drop rule)이라 불리는 이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인종은 생물학적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산물이다. 인종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산물이라는 가정은 집단 간의 힘의 관계가 인종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인종과 인종주의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비판이론가들은 지배그룹과 종속그룹간의 구조적 관계나 지배계급이 어떻게 그들의 특전과 지위를 유지시키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대표적인 인종문제 관련 비판이론가인 Derrick Bell은 '이익접점 이론'을 소개 하였는데, 그 주된 요점은 소수자의 이익은 주류 또는 지배층의 이익과 일치될 때에만 수용되어진다는 것이다.[6]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7] 평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흑백평등(黑白平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흑인 자녀들은 백인과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흑인 학생들의 자퇴율 또한 백인 학생들에 비해 높아 흑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Bell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평결이 미국 북동부 지역의 백인 엘리트 계층

6) Bell, Derrick A., op. cit, 1980, pp. 518-534; Bell, Derrick A., op. cit, 2004.

7) Brown의 소송은 1951년 Oliver Brown의 딸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에서 다섯 블록 이내에 있는 가까운 백인 초등학교대신 21블록 떨어진 흑인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시작된다. Oliver Brown, 12명의 학부모, 그리고 흑인단체는 3년간의 긴 싸움을 거쳐 1954년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인종에 근거한 분리교육(School Segregation)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다. 이는 그동안 미국 사회를 지배해온 "분리하지만 평등하게"(separate but equal)라는 원칙을 뒤집는 판결이었다. 인종에 근거해서 분리교육하는 것은 아무리 평등한 시설과 수업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분리 그 자체가 차별이라는 결정이었다. Spring, Joel., *The American school: 1642-2004,* New York: McGraw Hill, 2005, pp. 406-409. 참조.

과 흑인 인권운동가 사이의 계산과 이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진정한 흑백평등을 위해서 평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Bell은 두 가지 시대적 배경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은 남부의 공업화·산업화였다. 당시 미국 북동부 엘리트들은 농업 중심의 남부를 공업화·산업화시키기 원했는데, 당시의 수많은 분리정책들은 이를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는 당시가 냉전시대로,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진영과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진영간의 대립과 상호비방이 만연한 시기였다는 것이다. 미국 엘리트 계층은 미국이 인권을 무시한다는 이미지가 공산세력에 의해 선전 도구로 사용될 것을 걱정하였다. 이러한 계산들에 의해 내려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평결이 진정한 흑백평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Bell은 주장한다.

Bell의 '이익 접점 이론'은 인간을 너무 이기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 받기도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Ogletree는 노예제도 및 인종차별에 관련된 배상 소송 과정을 '이익 접점 이론'과 접목하여 설명하였고[8], Morrison은 '이익 접점 이론'을 이용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관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으며[9], Green은 유색인종의 업무현장 처우 개선 방법을 논의하였다.[10] 또한 Castagno와 Lee는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언

8) Ogletree, Charles J., "Tulsa reparations: The survivor's story.", *Boston College Third World Law Journal*, 24(1): 13-30. 2004.

9) Morrison, Adele M., "Changing the domestic violence (dis)course: Moving from White victim to multi-cultural survivor.", *U.C. DAVIS L. REV.* 39: 1061, 1114 - 1115, 2006.

10) Green, Michael Z., "Addressing race discrimination under Title VII after forty years: The promise of ADR as interest-convergence.", *Howard Law Journal* 48(3): 937-970, 2005.

의 이미지를 대학의 마스코트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논쟁을 '이익 접점 이론'을 통하여 논의하였으며[11], Adamson은 흑인 학생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백인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외 지역의 학교에 이익이 가기 전 까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12], Guinier는 집단 간의 경제적 분쟁이 인종주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13]

3.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주 역사

Bailyn에 따르면, 교육사 연구자들은 지나치게 정규 교육 또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이벤트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배경이 되는 시대적 맥락, 전후 사정 등을 간과하고 있다.[14] 이는 교육사를 보다 다층적으로 통찰력 있게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다. 이에 필자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교육사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의 이주역사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관련된 교육사는 물론이고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는 미국의 다른 인종들에 비하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들 역시 긴 이주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편견과 차별적 대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였

11) Castagno, Angelina E. & Lee, Stacey J., "Native mascots and ethnic fraud in higher education: Using tribal critical race theory and the interest convergence principle as an analytic tool.", *Equity & Excellence in Education*, 40(1): 3-13, 2007.

12) Adamson, Bryan L., "The H'aint in the (school) house: The interest convergence paradigm in state legislatures and school finance reform.", *California Western Law Review*, 43: 173-202, 2006.

13) Guiner, Lani, "From racial liberalism to racial literacy: Brown v. Board of edcuation and the interest-divergence dilemma.",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1(1): 92-118. 2004.

14) Bailyn, Bernard, *Education in the forming of American society: Needs and opportunities for stud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2, p. 9.

다.[15] 미국의 첫 번째 아시아계 정착민은 필리핀 선원들로 추정된다.[16] 이들은 1760년경에 현재의 루이지에나 지역에 정착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첫 번째 대규모 아시아계 이주는 19세기 중반의 중국계 이주노동자의 물결과 함께 시작되었다.

1) 중국계 이주자

영국과의 아편전쟁(1839-1842)에서 패함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고난은 많은 중국인들이 그들의 고향과 나라를 떠나게 만들었다.[17] 때마침 금광이 발견된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이런 중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떠올랐다. 중국 본토와 1852년 이후부터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많은 중국인들은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다. 또한 1860년대에 시작한 대륙횡단철도공사는 많은 중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였다. 중국인들은 미국에서 재산을 모아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미국으로 몰려들었다. 예를 들어, 1865년에는 50,000명의 중국인들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였다.[18] 중태평양 철도공사 사업자들은 약 10,000에

15) 서방사회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그 종류와 범위가 다양한데, Younghan Kim, Representation of people of Asian descent in mainstream mass media within the U.S. *KAME* 5(2): 20-48. 2013에 따르면 매스미디어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선입관적 이미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박홍규, 「D.H. 로렌스의 오리엔탈리즘」,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69호, 2013, 12. pp. 351-378.는 문학계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David Herbert Lawrence 역시 아시아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16) Espina, Marina E., *Filipinos in Louisiana*, New Orleans, Louisiana: Laborde. 1988.

17) Marez, Curtis, *Drug wars: The political economy of narcot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4.

18) Chang, Iris, *The Chinese in America: A Narrative history*, New York: Penguin Books, 2004, p. 54.

서 12,000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19] 하지만 이들의 꿈은 쉽게 달성되지 않았다. 중국계 이주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인종 차별을 견디어야 했다. 1,000명 이상의 중국계 이주 노동자가 철도공사 중 눈사태와 터널 폭파작업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유럽에서 온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그들의 임금의 60%만 받았다. 이들은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외국인 광부 세금'(Foreign Miner Tax)이라는 미명 하에 제도화된 인종 차별을 겪었다.[20] '외국인 광부 세금'이란 모든 외국인 광부에게 세금을 걷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실제는 중국계 노동자들에게만 세금을 걷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 온 광부들에게서는 세금을 걷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경제적 위협 또는 경쟁자로 인식하고 폭동을 일으켜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해하였다. 특히 1870년대 후반 심각한 경기 침체와 실업으로 인하여 반중국인(Anti-Chinese)감정이 만연해졌고 의회는 악화된 국민 여론을 돌리기 위해 1882년 '중국인 배제 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금지하는 조치였다.

2) 일본계 이주자

일본인들의 해외 이주는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일본의 새 정권은 1873년 새로운 세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많은 농민들이 그들의 농토를 잃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19) Chew, William F., *Nameless builders of the Transcontinental Railway : the Chinese workers of the Central Pacific Railroad*, Victoria, British Columbia: Trafford, 2004, p. 5.

20) Smith, Stacey L., *Freedom's frontier: California and the struggle over unfree labor, emancipation, and reconstruc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3, pp.80-108; Pfaelzer, Jean, *Driven out: The forgotten war against Chinese America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p. 3-46.

이 제도는 이전까지의 세금 정책과 달리 '고정세금' 정책이었다.[21] 다시 말하여 새로운 세금제도는 곡물의 물가변동과 상관없이 농경지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량의 고정된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제도였다. 1881년에 쌀값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로 인하여 많은 농부들은 경제적 파탄을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1883년부터 1890년 사이에는 367,000명의 농부들이 세금을 못 내고 농경지를 잃었다. 이러한 배경이 많은 일본인 농부들을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몰려들게 만들었다. 특히 1884년 일본정부와 하와이 지방정부가 일본인 농부의 하와이 송출을 합의한 이후, 13년 동안 49,085명의 일본인들이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주해 왔다. 이는 매년 평균 3,700명이 하와이에 이주한 셈이다. 그 후 7년 동안은(1898-1904) 매년 평균 더 많은 수인 9,900명이 하와이로 이주해왔다. 그 결과, 1900년에 일본인들은 하와이에서 가장 큰 민족집단이 되었다. 한편, 미국 본토로의 일본인 이주자의 대량 유입은 1882년 중국인 배제 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2] 대륙횡단철도공사 사업자들은 중국인 추방 이후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인 이주자에게로 눈을 돌렸다. 하와이와 일본에서 온 많은 일본인 노동자들은 미 서북부 철도공사에 투입되었다. 예를 들어, 1907년 오리건 주의 철도공사 노동자 중 40%가 일본계 노동자였다.[23]

이들 일본인들도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재산을 모아 모국으로 돌아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미국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본국인 일본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물가상승으로 이들의 목

---

21) Tamura, Eileen H., *Americanization, acculturation, and ethnic identity: The Nisei generation in Hawaii*,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pp. 9-10.

22) Park, Young, *The dark side: Immigrants, racism, and the American way*, Bloomington, Indiana: iUniverse, 2012, p. 117-118.

23) Park, Young, op. cit, pp. 119-120.

표는 쉽게 달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 역시 중국계 이주 노동자들처럼 열악한 환경과 인종 차별을 견디어야 했다. 특히 일본인 이주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반일본인(Anti-Japanese) 정서가 만연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와 일본정부는 새로운 일본인 노동자 이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 of 1907, 日米紳士協約)을 맺는다.[24] 새로운 일본인 노동자의 이주를 제한하는 대신에 이미 미국으로 건너 와있는 이주노동자의 부인, 자녀, 신부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는 일본인 이주 역사와 중국인 이주 역사의 큰 차이점을 나타나게 하였다. 두 집단 모두 미국에서 재산을 모아 모국으로 돌아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미국에 온 것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주자는 젊은 미혼 남성들이었다. 하지만 일본인 이주자의 경우 '신사협정'으로 인하여 자녀, 부인 또는 신부감을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허용되자, 자신의 나라에서 신부감을 구하여 미국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열악한 경제사정과 시간사정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 신부를 데려올 상황이 아니어서 오로지 사진 교류만을 통해서 선을 보고 결혼을 약속하는 풍조가 일본인 이주자들 사이에 나타났다. 서로에 관하여 모르는 상태에서 성사된 결혼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일본 사회에는 결혼이 연애 감정, 사랑 등의 로맨스에 바탕을 둔 두 개인 간의 결합보다는 두 집안 간의 결합이라고 간주되어 많은 수의 일본인 여성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주해 온 신부들은 '사진신부'(Picture Brides)라고 불렸다.[25] '사진신부' 풍습으로 인하여 중국계 이주자들과 달

24) Tamura, Eileen H., op. cit, 1994, p. 18.

25) Banks, James A., *Teaching strategies for ethnic studies*, Boston, Massachusetts: Pearson Allyn & Bacon, 2009, pp. 408-409; Wyman, Mark, *Hoboes: bindlestiffs, fruit tramps, and the harvesting of the West*, Hill & Wang, 2010, pp. 82-99; Tamura, Eileen H., op. cit, 1994, pp. 22-25.

리 일본계 이주자들은 남녀 성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족을 이룰 수 있었다. 가족을 이룬 일본계 이주자들은 그렇지 못한 중국계 이주자들과 비교하여 빠른 속도로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로 작은 자영업, 농업, 원예업에 종사하였는데 주로 대다수 미국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버려둔 땅을 개간하여 풍요로운 논밭을 일구어 내었다. 미국인들은 이들의 부지런함과 농업 기술력을 칭송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미국인 노동자와 농업 종사자들은 이들 일본계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경쟁자로 커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다. 이러한 불만은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공격을 계기로 극에 달하였고 일본계 이주자들이 일본 정부의 스파이로 활동할 수 있다는 미명 하에 미국 정부는 1942년 서부 해안 지역의 일본계 이주자 가족들을 미국 내륙에 있는 수용소로 보냈다.[26]

3) 필리핀계 이주자

미국의 첫 번째 아시아계 정착민은 필리핀인들로 추정되지만 본격적인 필리핀인들의 이주는 20세기 초에 이루어졌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 of 1907, 日米紳士協約)에 의해 값싼 노동력의 유입이 막힌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필리핀계 노동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고 이들의 미국 본토로의 유입도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Banks에 따르면 1929년 한해에만 5,795명의 필리핀계 노동자들이 캘리포니아로 유입되었다.[27] 이는 1920년에 미국 전역에 단지

26) Weinberg, Meyer, *Asian-American education: Historical background and current realities*,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1997, pp. 52-65; Banks, James A., op. cit, 2009, pp. 411-412.

27) Banks, James A., op. cit, p.418.

5,603명의 필리핀계 이주자가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숫자라고 볼 수 있다. 필리핀계 이주자들은 다른 아시아계 이주자들과 법적 신분 상태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1924년 외국인 이주자의 수를 제한하는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24)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아시아계 노동자들의 미국으로의 이주를 사실상 완전히 금지한 것이었다. 하지만 필리핀은 당시 미국의 식민지여서 필리핀인들은 엄밀히 따지면 미국인이었다. 따라서 필리핀계 노동자들은 다른 아시아계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1924년 이민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필리핀계 노동자의 유입이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28] 하지만 필리핀 이주자들은 미국인 시민권을 부여받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들 역시 다른 아시아계 이주 노동자들과 같이 수많은 인종차별적인 폭력과 폭동의 희생자들이었다.

1930년 1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왓슨빌(Watsonville)에서 일어난 폭력소요는 미국 백인들과 필리핀 이주자들 간의 극한 대립과 반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29]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는 유색인종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으로 다른 인종간의 남녀교류를 금기시 해왔다. 1930년 1월 필리핀 이주자들이 소유한 댄스 바에 9명의 백인 여성 댄서(Taxi Dancer)들이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백인 군중들은 댄스 바로 몰려가 필리핀인들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대치는 반필리핀(Anti-Filipino) 폭력소요로 발전되어 수백 명의 군중들에 의해 필리핀 이주자들과 그들의 주거지가 공격당하였다. 1930년 1

28) Weinberg, Meyer., op. cit, p. 118.

29) Banks, James A., op. cit, pp. 419-420; Meynell, Richard B. "Remembering the Watsonville Riots" n.d. 1998. (http://www.modelminority.com/joomla/index.php?option=com_content&view%20%20%20=article&id=271:remembering-the-watsonville-riots-&catid=40:history&Itemid=56에서 2015년 5월 16일 인출)

월 19일 부터 23일까지 5일 간의 소요는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 반필리핀 정서에 의한 폭력사태가 빈번했었다. 많은 국수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은 필리핀 이주자들이 법적으로 외국인 지위가 아닌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필리핀을 1946년 7월 4일에 독립시키기로 하는 '필리핀 독립 법안'(Philippine Independence Act of 1934)이 1934년에 통과됨에 따라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미국인 지위를 잃었고, 다른 외국인 이주자들처럼 입국 제한을 받게 되었다.[30]

4) 변화의 시기

이처럼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아시아계 이주자들에게는 배척과 차별의 시기였다. 또한 아시아인들이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해친다는 '황색 공포'(Yellow Peril)[31]와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아시아계 이주자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미국에 유입되었다. 농장주 또는 기업가들은 이들을 통하여 경제적 수익을 얻었으나 자국의 노동계층 또는 국수주의자들의 저항에 부딪혔을 때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배척하고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중국인들이 배척된 이후 일본인들을 받아들이고 일본인들이 배척된 이후 필리핀인들을 받아들이며 값싼 노동력을 유지하였다. 이는 그들의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었지 그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극명히 보여준다.

---

30) Weinberg, Meyer., op. cit, p. 115; Banks, James A., op. cit, p. 420.

31) 황색 공포(yellow peril)는 황색(아시아계)인종이 서구문명과 종교에 위협을 주니 몰아내야 한다는 사고이다. Marchetti, Gina, *Romance and the "Yellow Peril": Race, sex, and discursive strategies in Hollywood fic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에 따르면, 이러한 믿음은 중세 시대의 칭기스 칸과 몽골의 유럽침략에 대한 두려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패러다임에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가 된다.[32] 1941년 12월 7일(일본 날짜 8일) 아침,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은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 이로써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s)과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聯合國, Allied Powers)으로 대치되는 전선이 이루어지자, 미국 언론들은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게 하고 중국인에 대해서는 호의를 갖게 하는 기사들과 광고들을 게재하였다. 예를 들어, 1943년 코카콜라 광고들 중 한 광고는 미군과 중국군이 함께 코카콜라를 마시는 그림을 게재하면서 "콜라 마실래."라는 권유는 중국과 미국이 친구라고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광고 문안을 내세웠다. 또한 1941년 12월 22일자 『타임지』의 「어떻게 우리의 친구를 '일본 놈(Japs)'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가」[33]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중국인과 일본인의 구별 방법을 나열하였는데 일본인들의 특징을 독단적이고, 오만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등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중국인들은 친절하고, 여유가 있다는 등 긍정적적으로 묘사하였다. 정책 또한 변화가 있었는데 '중국인 배제 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을 1943년에 폐지하였고 1942년에는 필리핀인들의 미국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그들이 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쟁 후 1952년에는 일본계 참전 용사 등의 기여를 인정함과 동시에, 냉전시대에 대비하여, 인종에 바탕을 둔 법 대신에 기여도, 능력, 기술력 등이 귀화와 이민의 기준이 되는 '맥케렌 워터 법' (McCarran-Walter Act of 1952)을 통과시켰다.[34] 이렇듯 1940년대와 50년대는 아시아계

32) Tamura, Eileen H., "Asian Americans in the history of education: An historiographical essay.",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41(1): 58-71, 2001.

33) 『Time』 1941년 12월 22일, 「How to tell your friend from the Japs」, p. 33.

34) Marinari, Maddale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52)/McCarran-Walter Act.", In Patrick J. Hayes(Ed.), *The making of modern immigration: An encyclopedia of people and ideas,* Santa Barbara, California: ABC-

이주자들에게 적용되었던 인종차별적 제도가 점점 더 느슨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1965년 이민법' (Immigration Act of 1965)에 의해 이전까지 있었던 유색인종을 향한 차별적인 이민정책들이 제거됨에 따라 아시아계 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주자의 출신국도 점차 다양해져, 2010년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중국, 일본, 필리핀, 한국, 베트남, 태국, 인도, 파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다양하다(〈표 1〉 참고). 변화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 표면적 모습은 변화가 있었으나 미국사회가 진정한 인종적 평등을 이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음에 나오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교육사는 이를 보다 분명하게 증명해준다.

〈표 1〉 아시아계 미국인 수: 2010[35]

민족	아시아계 인종		아시아계와 다른 인종 혼혈		합계
	하나[36]	둘 이상[37]	하나	둘 이상	
인도계	2,843,391	75,416	240,547	23,709	3,183,063
방글라데시계	128,792	13,288	4,364	856	147,300
부탄계	15,290	3,524	442	183	19,439
버마계	91,085	4,451	4,077	587	100,200
캄보디아계	231,616	23,881	18,229	2,941	276,667
중국계	3,347,229	188,153	334,144	140,588	4,010,114

CLIO, 2012, pp. 355-368; Tamura, Eileen H., op. cit, 2001, p. 60; Weinberg, Meyer, op. cit, p. 87.

35) Hoeffel, Elizabeth M., Rastogi, Sonya, Kim, Myoung Ouk, & Shahid, Hasan, "The Asian population: 2010", U.S. Census Bureau, Mar., 2012, p. 14. (http://www.census.gov/prod/cen2010/briefs/c2010br-11.pdf에서 2015년 5월 8일 인출)

36) 한 민족이라고 보고(One detailed Asian group reported).

37) 둘 이상의 민족이라고 보고(Two or more detailed Asian groups reported).

타이완 제외	3,137,061	185,289	317,344	140,038	3,779,732
타이완계	196,691	2,501	15,781	468	215,441
필리핀계	2,555,923	94,050	645,970	120,897	3,416,840
몽계	247,595	4,728	7,392	358	260,073
인도네시아계	63,383	6,713	22,425	2,749	95,270
이오지마계	1	1	7	3	12
일본계	763,325	78,499	368,094	94,368	1,304,286
한국계	1,423,784	39,690	216,288	27,060	1,706,822
라오스계	191,200	18,446	19,733	2,751	232,130
말레이시아계	16,138	5,730	3,214	1,097	26,179
몰디브계	98	4	25	-	127
몽고계	14,366	772	2,779	427	18,344
네팔계	51,907	5,302	1,941	340	59,490
오키나와계	2,753	2,928	3,093	2,552	11,326
파키스탄계	363,699	19,295	24,184	1,985	409,163
싱가포르계	3,418	1,151	645	133	5,347
스리랑카계	38,596	2,860	3,607	318	45,381
태국계	166,620	16,252	48,620	6,091	237,583
베트남계	1,548,449	84,268	93,058	11,658	1,737,433
기타	218,922	19,410	366,652	18,777	623,761
합계	14,327,580	346,672	2,429,530	217,074	17,320,856

4. 아시아계 미국인의 교육사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에 근거한 분리교육은 시기, 지역, 민족,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1954년 연방대법원의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평결이 내려질 때까지 흑백분리 뿐 아니라 백인과 아시아인들 사이의 분리교육도 만연되어 있었고 이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 또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분리교육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아시아계 이주민들은 그들의 모국어 및 모국 문화유산을 가르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장에서는 아시아계 이주자가 겪은 차별적 교육정책과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살펴보겠다.

1) 분리교육(School Segregation)

1884년 한 중국계 부모인, Joseph Tape와 Mary Tape는 그들의 딸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프링 밸리(Spring Valley) 공립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거절당했을 때,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38] 그들의 딸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당시 샌프란시스코 교육 위원회는 중국계 학생들이 시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1884년 가을에 시작된 재판은 1885년 1월 캘리포니아 법정이 Tape 가정에 손을 들어 줌으로써 Tape 가정의 승리로 끝난다. 하지만, 1885년 4월 그들의 딸 Mamie Tape의 Spring Valley 공립초등학교 입학은 다시 한 번 거절되었다. 이번에 학교 측에서 들고 나온 표면적 거절 이유는 Mamie Tape가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는 것과 학교의 학생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유색인종과 백인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주 정치인들에게 로비하여, 중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있는 경우 그들은 무조건 그 학교에

38) Ngai, Mae, *The lucky ones: One family and the extraordinary invention of Chinese America*,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0, pp. 43-57; Thompson, Daniella, "The Tapes of Russell Street: An accomplished family of school desegregation pioneers.", BAHA, 30 Apr., 2004. (http://berkeleyheritage.com/essays/tape_family.html에서 2014년 3월 16일 인출); Hing, Bill. O., "The fight to go to S.F. public schools.", Asian Week. 23 Mar. 2001. (http://www.irwinator.com/126/wdoc147.htm에서 2015년 5월 7일 인출)

가야 된다는 조항을 둠과 동시에 중국계 학생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Mamie Tape는 결국 1885년 4월에 새로 연 중국계 학생들을 위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일본계 이주자들의 경우, 다른 아시아계 이주자들에 비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일반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39] 1906년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는 일본계 학생들을 아시아인들을 위한 학교(Oriental School)에 보내도록 명령한다. 이 정책은 일본정부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는데, 당시 국력이 급속도로 신장하고 있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원하지 않은 미국연방정부와 일본에 대하여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일본과 1907년 신사협정을 맺음으로써 이 정책은 공식적으로는 실천되지 못하게 된다.[40] 일본 정부의 미국 내 자국민 처우에 관한 관심과 이에 따른 개입은 다른 아시아계 이주자들의 모국 정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계 이주자들은 그들의 모국 정부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주자 그룹이 된다. 1941년 12월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선언하고 1942년 2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가 '행정명령 9066'(Executive Order 9066)에 서명함에 따라 서부 해안 지역의 약 110,000명의 일본계 이주자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포함한 그들의 가족들은 모든 생활 터전을 떠나 미국 내륙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졌다.[41] 이 수용소들이 위치한 곳들은 거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지역으로 주변에 마을이나 학교를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었

39) Schnaiberg, Lynn, "Beyond the common battleground.", In Virginia B. Edwards(ed.), *Lessons of a century: A nation's schools come of age*, Bethesda, Maryland: Editorial Projects in Education Inc., 2000, p. 75.

40) Schnaiberg, Lynn, op. cit, p. 75.

41) Banks, James A., op. cit, pp. 411-412; Schnaiberg, Lynn, op. cit, p. 75; Weinberg, Meyer, op. cit, p. 87.

다. 약 25,000명에서 30,000명 사이의 학생들은 수용소 철책 안쪽의 가건물로 된 교실에서 교육을 받았다.[42] 이들은 단지 물리적으로만 고립되었던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었다.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FT)[43] 등 몇몇의 조직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교육단체와 교육자들은 이들 일본계 학생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나 수용소에서의 고립된 교육이 어떻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다.[44]

2)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Bilingual - Bicultural Education)

분리교육 논쟁만큼 중요시된 다른 하나의 논쟁은 이주자들에게 모국어를 비롯한 그들의 모국 문화유산을 가르치는 것에 관한 논쟁이었다. 1909년 하와이에서 일본계 노동자들은 그들의 임금인상, 생활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다.[45] 비록 시위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시위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경제적 손실을 겪은 농장 경영자들은 불교 등의 종교 생활이 노동자들의 생활 및 근로 고통 등에 관하여 인내심을 갖게 하고 또한 도박 및 술을 멀리하게 하는 등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불교사원을 건축해준다. 일본계 이주자들은 방과 후 교실, 일요교실, 일본어학교 등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자녀들이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국수주의자 또

---

42) Schnaiberg, Lynn, op. cit, p. 75

43)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FT)는 일본계 이주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단순히 일본계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미합중국의 정신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44) Weinberg, Meyer, op. cit, p. 60.

45) Tamura, Eileen H., op. cit, 1994, pp. 211-234.

는 인종차별 주의자들은 이러한 이주자들의 모국문화 및 언어를 지키려는 노력을 외국인 혐오증을 확대시키기 위한 선전도구로 사용하거나 분리교육 등의 차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의 의도는 정책결정이나 정책연구에 반영되기도 하였는데, 한 예로 1919년 교육국에 의해 하와이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를 들 수 있다. Asato에 의하면, 1919년 실시된 설문조사는 일본어 학교들이 반(反)미국적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한다.[46] Asato는 그 증거로 표본으로 추출된 대상자들을 든다. 1919년에 발행된 설문조사 보고서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200명의 의견이 기록되어있으나 불교와 일본어 학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일본계 기독교 목사, Okumuara와 그의 아들을 제외하곤 정작 일반적 일본계 이주자들의 의견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이 보고서는 주로 백인 국수주의자 단체들의 권고를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왜 이 단체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이들이 일반인의 감정(public sentiment)을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을 위한 노력은 1970년대에 가서야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1968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소수자 학생들(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중언어 교육법'(the Bilingual Education Act of 1968)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법은 그 정의 및 지침이 불분명했고 또한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지 구속력을 갖지는 않았다.[47] 이에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계 Kinney Kinmon Lau의 가족과 12명의 다른 중국계 미국인들은

---

46) Asato, Noriko, "Mandating Americanization: Japanese language schools and the federal survey of education in Hawaii, 1916-1920.",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43(1): 10-38, 2003.

47) Stewner-Manzanares, Gloria, "The bilingual education act: Twenty years later", New Focus 6: 1-9. n.d. 1998. (http://eric.ed.gov/?id=ED337031에서 2015년 5월 22일 인출)

1970년 이중언어가 가능한 교사들에 의한 수업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974년 연방대법원은 Lau의 손을 들어 주었다.[48] 일명 '라우 대 니콜라스'(Lau v. Nicholas)라고 불리는 이 평결은 언어 능력이 학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많은 소수자 학생들의 공평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라우 대 니콜라스'(Lau v. Nicholas)평결과 뒤이어 나온 개정들로 인하여 지침들이 보다 분명해졌고 구속력 역시 갖게 되었다. 또한, 단순히 영어습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에서 모국언어와 문화를 통하여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는 진정한 의미의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3) 정형화된 이미지, '모범적 소수자'(Model Minority)와 보이지 않는 배척

1954년 연방대법원의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평결과 1964년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제정으로 공식적인 제도적 차별은 많이 제거되었다. 현재의 아시아계 이주자들은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받던 대우와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미국 사회는 196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계 이주자들은 다른 유색인종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룹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다수의 언론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모범적 사례로 묘사했다.[49] 일명 '모범적 소수자' (Model Minority)라는 개념은 아시아계 이주자들의 높은 교

48) Spring, Joel, op. cit, 2005, pp. 417-418.

49) 『The New York Times』 1966 1월 6일, 「Success story: Japanese American style」; 『Newsweek』 1982 12월 6일, 「Asian American: A model minority」 pp. 39, 42-2, 51; 『Time』 1983 3월 28일 「Confucian work ethic」 p. 52; 『Time』 1987 8월 31일 「The new whiz kids」 pp. 42-46; 『Newsweek』 1984년 4월 23일, 「A formula for success」 pp. 77-78; 『U.S. News and World Report』 1984년 4월 2일, 「Asian Americans: Are they making the grade?」 pp. 41-43, 46-47 참조

육열과 부지런함이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이끌었다는 믿음과 함께 다른 유색인종들도 아시아계 이민자들처럼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많은 수의 아시아계 이주자들은 아마도 '모범적 소수자'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모범적 소수자'라는 개념은 백인들에 의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신기루라고 주장한다.[50] 미국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흑인운동가들을 필두로 유색인종 등 소수자들의 시민운동이 활발한 시기였다. 백인사회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성공을 찬사함으로써 미국사회가 공정한 사회여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모범적 소수자' 개념을 이용하여 미국사회의 제도적 불평등을 외면하고 흑인, 인디안, 남미계 미국인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그들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모범적 소수자' 개념은 다양한 민족과 사회계층으로 구성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연구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은 백인들과 학교성적 및 진학률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흑인, 인디안, 남미계 학생들이 백인들과 학교성적 및 진학률에서 차이를 나타나는 것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모범적 소수자' 개념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Kim과 Yeh에 따르면 동남아계 이주자 가운데 하나인 몽계

50) Ono, Kent A. & Pham, Vincent, *Asian American and the media*, Cambridge, England: Polity Press, 2009, pp. 80-98; Lee, Robert. G., "The cold war origins of the model minority myth.", In Yu-Wen Shen Wu. & Thomas Chen (Eds.), *Asian American studies now: A critical reader*, Rutgers University Press, 2009, pp. 256-278; Lee, Stacey J., Wong, Nga-Wing A., & Alvarez, Alvin N., "The model minority and the perpetual foreigner: Stereotypes of Asian Americans", In Nita Tewari & Alvin N. Alvarez(ed.), *Asian American psychology: Current perspectives*, New York: Taylor & Francis, 2009, pp. 69-83; Ngo, Bic. & Lee, Stacey J., Complication the image of model minority success: A review of Southeast Asian American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7(4): 415-453, 2007.

미국인 (Hmong American)들 중 61%가 고등학교 미만의 교육을 받고, 몽계, 캄보디아계, 그리고 라오스계 미국인 중 10% 미만이 대학교육을 받는다.[51] 동남아계 미국인들이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비교하여 낮은 학업성취율을 보이는 이유는 전쟁과 난민생활로 인한 트라우마와 낮은 경제적 수준 등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처럼 동남아계 미국인들은 그들만의 고유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은 이들이 '모범적 소수자'인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분류되어 관심의 대상에서 자주 제외되었다.

특히 오늘날의 '모범적 소수자' 허상은 과거의 '황색공포'(Yellow Peril)와 결합되어 새로운 방식의 '분리교육'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52] Ono와 Pham에 따르면, 많은 백인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보내기를 꺼리는데, 그 주된 이유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학구열이 과다하고 또한 너무 경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언론들 또한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2005년 11월 19일자 기사 「새로운 백인 탈출」은 Silicon Valley에 있는 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주된 내용은 백인 학부모들이 학구열이 과다한 아시아계 학생들과의 경쟁을 원하지 않아 그들의 자녀들을 아시아계 학생 수가 적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킨다는 것이다.[53] 2007년 1월 7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언덕 위의 리틀 아시아」라는 제목의 기사는 UC Berkeley 캠퍼스 등 많은 수의 대학들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점

51) Kim & Yeh. Lee 외, 2009에서 재인용-Lee, Stacey J., Wong, Nga-Wing A., & Alvarez, Alvin N., op. cit, 2009, pp. 69-83.

52) Allred, Nancy Chung, "Asian Americans and affirmative action: From yellow peril to model minority and back again.", Asian American Law Journal 14(1): 5784, 2007; Takaki, Ronald, *Strangers from a different shore: A history of Asian Americans*, Boston, Massachusetts: Little, Brown, & Co. 1989; Ono, Kent A. & Pham, Vincent, op. cit, 2009, pp. 80-98.

53) 『The Wall Street Journal』 2005년 11월 19일, 「The New White Flight」

령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54] 특히 이들은 아이러니하게 아시아계 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Takaki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의 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식의 인종비하적 비방(racial slur)을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한다.[55] 예를 들어, 'M.I.T.'가 'Made in Taiwan'을 의미한다고 비꼬거나 'U.C.L.A.'가 'University of Caucasian Living among Asians'라고 하는 등 다양한 인종비하적 비방이 있다.

무엇보다도, 1980, 1990년대의 일본과 2000, 2010년대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황색공포'(Yellow Peril)가 다시 한 번 심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Fox 채널에서 방송되는 'The Five'라는 프로그램의 공동사회자인 Bob Beckel는 2014년 7월 10일 자 방송분에서 중국인들은 미국에서 컴퓨터관련 전문지식을 배우고 중국으로 돌아가서는 해커가 되어 미국의 정보 시스템 침투, 미국의 안보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인을 비하하는 용어인 'chinaman'을 방송에서 사용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56] 그는 나중에 중국인 비하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면서도 중국인들이 미국의 안전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자들에 의한 영어와 그들의 모국어를 같이 가르치는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노력 역시 1980년대 이후부터의 미국 교육계 기조인 '표준화 중심 운동'(Standards Movement)의 영향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표준화 중심 운동'이란 교육개선 운동으로 모든 학생들

54) 『The New York Times』 2007년 1월 7일, 「Little Asia on the Hill」

55) Takaki, Ronald, op. cit, p. 479.

56) Bob Beckel이 논란을 일으킨 부분 원문 "The Chinese are the single biggest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S. They have been, they will be and they can wait, they're very patient. Do you know what we just did? As usual, we bring them over here and we teach a bunch of Chinamen - er, Chinese people - how to do computers and then they go back to China and hack into us."

이 꼭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하는 것에 대한 학문적 표준을 수립하고자하는 운동인데, 이 운동은 1983년 대통령특별위원회 보고서인 『위기의 국가』(A Nation at Risk)가 미국학생들이 일본과 서독 등의 학생들과의 국제경쟁에서 뒤처진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되어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단순히 교육에 대한 우려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표준화 중심 운동'은 오랜 세월 동안 미국사회에서 끝나지 않는 논쟁인 '문화전쟁'(Culture Wars)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문화전쟁'의 기원은 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White Anglo-Saxon Protestant)의 미대륙 정착과 함께 시작되는데, 이들은 미대륙에 정착한 이후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종교, 언어, 문화에 동화(同化)될 것을 강요했다.[57] 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보는 인식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유색인종 및 소수자들의 시민운동과 이중언어-이중문화교육이나 다문화교육 등 교육개선 운동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에 위기를 느낀 백인우월주의자 및 보수주의자들은 백인문화 중심의 단일문화를 강조하며 정치적 실력행사를 하였다. 1988년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정안 227'(Proposition 227)이 주민투표로 통과되어 발의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이주자 학생들의 영어미숙과 학업성취를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모국어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이중 언어교육을 제한하였다. 또한 2001년 조지 부시(George W. Bush) 정부에 의해 통과된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아래에서 연방정부의 이중 언어교육 부서가 영어습득 부서로 대체되었다.[58] 보수주의자들은 영어를 백인문화와 가치를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이주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매개체로 인식하였다.[59]

---

57) Spring, Joel, op. cit, 2005, p. 3.

58) Spring, Joel, op. cit, 2005, pp. 461-463.

59) Huntington, Samuel, "The Hispanic challenge.", *Foreign policy*, 141: 30-45.

5. 논의

인종적 소수자인 동시에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역사는 Derrick Bell의 '이익 접점 이론'[60]에 의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19세기와 20세기 초 아시아계 이주자들이 그들의 조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는 데에는 모국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 등의 원인도 있었지만, 미국의 농장주나 사업가들이 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원인도 동시에 작용하였다. 이는 아시아계 이주자들의 이익과 백인 지배층의 이익이 일치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런 이익 일치는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斷續的)인 것이었다. 처음에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이익과 일치하였지만 자국의 노동계층 또는 국수주의자들의 저항이 커지자 백인 지배층은 중국계 노동자를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저항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중국계 노동자를 배척하고 다른 값싼 노동인력인 일본인들을 받아들였다. 일본인들을 배척한 이후에는 필리핀인들을 받아들이며 값싼 노동력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이익만을 지켜왔다. 이 시기에 만연한 '황색 공포'나 '외국인 혐오증'은 아시아계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해친다는 공포나 혐오보다도, 이들 이주자들이 미국에 오래 정착함으로써 잠재적인 경쟁상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들이 더 이상 백인 주류의 이익추구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경기 침체나 실업률이 높을 때마다 반외국인 감정이 만연해지

2004; Huntington, Samuel, "One nation, out of many: Why 'Americanization' of newcomers is still important.", *The American Enterprise*, 1 Sep. 2004. 참조. (http://www.highbeam.com/doc/1G1-120908429.html에서 2014년 5월 23일 인출)

60) Bell, Derrick A., op. cit, 1980, pp. 518-534; Bell, Derrick A., op. cit, 2004.

는 역사의 반복에서 보듯이, 인종주의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갈등이 보다 주된 원인이었다. 변화의 시작인 제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이익 논리에 따른 정치적 타협과 계산의 결과에 의하여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변화하였지 다문화주의, 인종평등, 또는 인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1943년에는 동맹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인 배제법'을 폐지하였고, 1942년에는 병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리핀인들의 미국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과 배경은 아시아계 이주자들의 교육사에도 영향을 미쳐 집단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주자들의 교육 경험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뚜렷이 나타났다. 국수주의자들은 외국인 혐오증을 확대시키는데 이주자들의 다른 문화, 종교, 언어를 선전도구로 사용한데 반하여 하와이 일본계 노동자들과 이익을 공유한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불교사원, 일요교실, 일본어학교 등의 설립을 지원 또는 묵인하였으며, 분리교육 또한 이익 논리에 따라 시대별, 민족별, 지역별로 일관성이 없게 이루어져 왔다. 미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일본 정부의 영향으로 일본계 이주자들의 자녀들은 다른 아시아계에 비하여 일반 공립학교에 입학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써 서부 해안 지역의 일본계 이주자들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들의 자녀들은 수용소 내의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했다. 이는 분리교육이 철저히 정치적 계산과 경제적 계산에 따라 실시된 결과란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분리교육은 논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데 만약 아시아계 이주민에 의하여 미국문화와 정체성이 해를 입는다고 백인 주류가 정말로 걱정하였다면, 그들은 이주민의 자녀들, 즉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을 미국문화에 동화(同化)시키기 위해서라도 분리교육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1960년대 이후 많은 차별적 정책들이 폐지되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다른 유색인종들과 다르게 '모범적 소수자'라고 불리며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모범적 소수자'라는 개념 역시 이익 논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백인 주류는 '모범적 소수자' 개념을 이용하여 미국 사회의 제도적 불평등을 외면하고 흑인, 인디안, 남미계 미국인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그들 자신의 문제로 돌리기 위하여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성공을 찬사하였고 이러한 찬사는 20세기 말부터는 '황색 공포'와 결합되어 오히려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차별하고 배척하는데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한때 아시아계 이주자들의 높은 교육열과 부지런함이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이끌었다고 찬사하였지만 최근에는 학구열이 너무 과다하고 경쟁적이라고 비판한다. 게다가 이들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그들의 경쟁 상대가 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며 미국의 주류인 백인이 상위에 있는 인종위계질서(Racial Hierarchy)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지, 대학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다양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부터의 교육계 기조인 '표준화 중심 운동'으로 인하여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이 위기를 맞게 된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아시아계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 편견, 고정관념, 배척은 개인의 성향이나 정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유지 또는 창출하기 위한 데서 비롯되는 사회구조의 산물인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국 아시아계 이주민의 역사를 중국, 일본, 필리핀계 이주자를 중심으로 살펴본 뒤,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

지어 이들의 교육사를 '이익 접점 이론'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연구 결과, 오랫동안 이민자의 나라를 표방해온 미국에서조차 아시아계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차별, 편견, 고정관념, 배척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부당한 처사의 근본적 원인은 아시아계 이주자 혹은 그 자녀들이 가진 다른 언어나 문화, 외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과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상황이나 미국의 주류인 백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경제적 계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Bell이 제시한 '이익 접점 이론'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데, 이주자들이 가진 '다름'에 대한 차별과 배척은 지배계급의 기득권 유지 등 사회구조의 불합리성을 숨기기 위한 표면적 이유였을 뿐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인종주의의 본질적 이유는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라고 믿어왔던 한국 사회 역시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한국사회는 출산율 저하, 대학 진학률 상승,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단순노동 인력부족, 농촌공동화 등 구조적 공백이 생겨났고, 이를 채우기 위한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으로 2014년 전체 인구 가운데 3.5%에 이르는 수치인 1,79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61] 물론 한국사회는 인구의 구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맥락에 있어서 미국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계 이주민의 역사와 교육사 분석을 통해 밝혀낸 인종주의의 본질적 이유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겠다. 한국 사회는 지난 1990년대부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 비정부기구(NGO), 방송매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61) 법무부, 2015

대부분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해나 관용, 또는 화합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다. 앞서 미국 아시아계 이주자들의 역사와 교육사에서 살펴봤듯이 이주자에 대한 차별, 편견, 고정관념, 배척은 그 사회의 주류계층의 이익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배그룹과 종속그룹간의 관계와 같은 사회의 구조적 불균형이 인종주의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Thompson, Daniella, "The Tapes of Russell Street: An accomplished family of school desegregation pioneers.", *BAHA*, 30 Apr. 2004, 16 Mar. 2015 〈http://berkeleyheritage.com/essays/tape_family.html〉.

Hing, Bill. O, "The fight to go to S.F. public schools.", *Asian Week,* 23 Mar. 2001, 7 May. 2015 〈http://www.irwinator.com/126/wdoc147.htm〉.

Huntington, Samuel, "One nation, out of many: Why 'Americanization' of newcomers is still important.", *The American Enterprise*, 1 Sep. 2004, 23 May. 2015 〈http://www.highbeam.com/doc/1G1-120908429.html〉

Huntington, Samuel, "The Hispanic challenge.", *Foreign policy*, 141: 30-45. 2004.

Meynell, Richard B., "Remembering the Watsonville Riots,", Excerpted from "Little Brown Brothers, Little White Girls: The Anti-Filipino Hysteria of 1930 and the Watsonville Riots," *Passports* 22, n.d. 1998. 16 May. 2015. http://www.modelminority.com/joomla/index.php?option=com_content &view%〉

Marinari, Maddale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52)/McCarran-Walter Act.", In Patrick J. Hayes(Ed.), *The making of modern*

immigration: An encyclopedia of people and ideas (Vol. 1., pp. 355–368), Santa Barbara, California: ABC–CLIO, 2012.

Morrison, Adele M, "Changing the domestic violence (dis)course: Moving from White victim to multi–cultural survivor.", *U.C. DAVIS L. REV.* 39: 1061, 1114-1115, 2006.

Stewner–Manzanares, Gloria, "The bilingual education act: Twenty years later", *New Focus* 6: 1–9. n.d., 1998, 22 May, 2015. 〈http://eric.ed.gov/?id=ED337031〉

OECD, "World migration in figures", OECD–UNDESA, 2012.

2. 논문

박홍규, 「D.H. 로렌스의 오리엔탈리즘」,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69호, 2013, 12. pp. 351–378.

Adamson, Bryan L., "The H'aint in the (school) house: The interest convergence paradigm in state legislatures and school finance reform.", *California Western Law Review*, 43: 173–202, 2006.

Allred, Nancy Chung, "Asian Americans and affirmative action: From yellow peril to model minority and back again.", *Asian American Law Journal* 14(1): 57-84, 2007.

Asato, Noriko, "Mandating Americanization: Japanese language schools and the federal survey of education in Hawaii, 1916–1920.",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43(1): 10–38, 2003.

Bell, Derrick A., "Brown v. Board of Education and the interest–convergence dilemma.", *Harvard Law Review* 93(3): 518–34, 1980.

Castagno, Angelina E., & Lee, Stacey J., "Native mascots and ethnic fraud in higher education: Using tribal critical race theory and the interest convergence principle as an analytic tool.", *Equity & Excellence in Education* 40(1): 3–13, 2007.

Green, Michael Z., "Addressing race discrimination under Title VII after forty years: The promise of ADR as interest–convergence.", *Howard Law Journal* 48(3): 937–970, 2005.

Kim, Younghan, Representation of people of Asian descent in mainstream mass media within the United States, *KAME* 5(2): 20–48, 2013.

Krausm, George, "Chinese laborer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Central

Pacific.", *Utah Historical Quarterly* 37(1): 41–57, 1969.
Ngo, Bic. & Lee, Stacey J., Complication the image of model minority success: A review of Southeast Asian American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7(4): 415–452, 2007.
Ogletree, Charles J., "Tulsa reparations: The survivor's story.", *Boston College Third World Law Journal* 24(1): 13–30, 2004.
Stanley, Timothy, "Bring Anti–racism into historical explanation: The victoria chinese students' strike of 1992–3 revisited.", *Journal of the Canadian History Association* 13(1), 141–165, 2002.
Tamura, Eileen H., "Asian Americans in the history of education: An historiographical essay.",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41(1): 58–71, 2001.

3. 단행본

Albrow, Martin, *The global age*. Cambridge, England: Polity Press, 1996.
Bailyn, Bernard, *Education in the forming of American society: Needs and opportunities for stud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2.
Banks, James A., *Teaching strategies for ethnic studies* (8th ed.), Boston, Massachusetts: Pearson Allyn & Bacon, 2009.
Bell, Derrick A., *Silent covenants: Brown v. Board of Education and the unfulfilled hopes for racial reform,*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Castells, Manuel, *End of millennium,* Oxford, England: Blackwell, 1998.
Castells, Manuel,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England: Blackwell, 1996.
Castles, Stephen & Miller, Mark J.,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eople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4th e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Castles, Stephen, "The myth of the controllability of difference: labor migration, transnational communities and state strateg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Katie Willis & Brenda S. A. Yeoh(eds.), *State/Nation /Translation: Perspectives on Transnationalism in the Asia–Pacific* (pp. 3–26),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04.
Chang, Iris., *The Chinese in America: A Narrative history,* New York:

Penguin Books, 2004.

Chew, William F., *Nameless builders of the Transcontinental Railway : the Chinese workers of the Central Pacific Railroad,* Victoria, British Columbia: Trafford, 2004.

Espina, Marina E., *Filipinos in Louisiana,* New Orleans, Louisiana: A. F. Laborde, 1988.

Galabuzi, Grace-Edward, *Canada's economic apartheid: The social exclusion of racialized groups in the new century,* Toronto: Canadian Scholar's Press, 2006.

King, Joyce Elaine, "Black studies, curriculum transformation, and social action.", In James A. Banks & Cherry A. McGee Banks (Eds.),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2nd ed., pp. 349-378), San Francisco, California: Jossey-Bass, 2004.

Lee, Robert. G., "The cold war origins of the model minority myth.", In Yu-Wen Shen Wu. & Thomas Chen (Eds.), *Asian American studies now: A critical reader*(pp. 256-278), Rutgers University Press, 2009.

Lee, Stacey J., Wong, Nga-Wing A., & Alvarez, Alvin N., "The model minority and the perpetual foreigner: Stereotypes of Asian Americans", In Nita Tewari & Alvin N. Alvarez(ed.), *Asian American psychology: Current perspectives* (pp. 69-83), New York: Taylor & Francis, 2009.

Marchetti, Gina, *Romance and the "Yellow Peril": Race, sex, and discursive strategies in Hollywood fic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Marez, Curtis, *Drug wars: The political economy of narcot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4.

Martinot, Steve, *The rule of racialization: Class, identity, governanc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03.

Ngai, Mae, *The lucky ones: One family and the extraordinary invention of Chinese America,*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0.

Ono, Kent A. and Pham, Vincent N., *Asian American and the media,* Cambridge, England: Polity Press, 2009.

Park, Young, *The dark side: Immigrants, racism, and the American way,* Bloomington, Indiana: iUniverse, 2012

Pfaelzer, Jean, *Driven out: The forgotten war against Chinese America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Schnaiberg, Lynn, "Beyond the common battleground.", In Virginia B. Edwards(ed.), *Lessons of a century: A nation's schools come of age* (pp. 74–76), Bethesda, Maryland: Editorial Projects in Education Inc, 2000.
Smith, Stacey L., *Freedom's frontier: California and the struggle over unfree labor, emancipation, and reconstruc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3.
Spring, Joel, *The American school: 1642–2004* (6th ed.), New York: McGraw Hill, 2005.
Takaki, Ronald, *Strangers from a different shore: A history of Asian Americans,* Boston, Massachusetts: Little, Brown, & Co, 1989.
Tamura, Eileen H., *Americanization, acculturation, and ethnic identity: The Nisei generation in Hawaii,*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Weinberg, Meyer, *Asian–American education: Historical background and current realities,*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1997.
Wyman, Mark, *Hoboes: bindlestiffs, fruit tramps, and the harvesting of the West,* New York: Hill & Wang, 2010.

(**투고일**: 2015. 6. 29 **심사완료일**: 2015. 7. 27 **게재확정일**: 2015. 8. 5)

김용한
소속: 명지대학교 국제다문화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21012
전화번호: 02-300-0896
전자우편: 15han20@mju.ac.kr

이전이
소속: 한양대학교
주소: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화번호: 02-2220-1100
전자우편: jeonyilee@hanyang.ac.kr

[Abstract]

A History of Asian Americans and Racism against Them

Kim, Young-Han · Lee, Jeon-Yi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9), about 3%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outside the nation in which they were born. Although the movement of people across national boundaries is not a new phenomenon, never before in our history has the movement of racially and ethnically diverse groups across nations been as numerous as today. This means preparing individuals to competently work and live with an ethnically and racially diverse population of people is essential, not optional.

This study reviews histories of immigrants in the Untied States of America which is often called a nation of immigrants. More specifically, histories of one minority category in the U.S., the people of Asian descent, and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are examined. This study finds that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are not simply caused by cultural, linguistic, racial, and ethnic heterogeneity. A more fundamental cause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s economic and political conflicts.

Key Words: Immigration, School segregation, Bilingual-bicultural education, Asian American, Interest convergence theory